



백화점 3사
외국인 매출 급증
콘텐츠 강화 나서
L1

metro®

Life

K-바이오
임상시험 넘어
현장 데이터 쌓는다
L2



“AI로 합격 예측·진로 컨설팅까지… 교육, ‘초개인화’ 전환”

속깊은 인터뷰

이병희

에듀테크 기업 ‘윈드폴리’ 대표

교육 현장이 격변기를 맞고 있다. 인공지능(AI) 시대, 대학과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이를 준비하는 교육 시장은 여전히 ‘인강(인터넷 강의)’에 의존한 과목별 지식 습득에 머물러 있다. 수천, 수만 명의 학생이 저마다 다른 역량과 목표를 가지지만, 교육 서비스는 과거의 틀에 얽매인 매스에듀케이션(Mass Education) 방식을 고수한다.

정보 불균형으로 인한 편차도 커지고 있다. 충분한 재능과 역량을 가졌음에도 정보으로 원하는 대학에 원서도 넣어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흔하게 일어난다. 정형화된 틀을 벗어나 개인의 성장과 목표, 성적에 맞춘 ‘초개인화 커리큘럼’이 절실한 상황이다.

에듀테크 기업 ‘윈드폴리’의 이병희 대표는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해 10월 ‘초개인화 AI 솔루션’을 시작한다. 기존에 갖고 있던 1대1 멘토링 플랫폼 ‘오디바이스’와 함께, AI를 기반으로 합격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고 진로·진학 설계 솔루션을 제공하는 새로운 플랫폼 ‘캐스트’를 론칭했다.

캐스트는 주요 대학들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신, 생기부, 모의고사, 수능 성적을 입력하면 대학별·학과별 합격 확률을 예측해 알려준다. 개인에 합격 확률이 높은 대학과 학과를 추천하고, 수시·정시 전형까지 개개인에 맞춘 구체적인 솔루션도 제공한다.

이병희 대표는 “1시간에 100만원에 호가하는 대입 컨설팅도 결국 얼마나 충분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가에 달렸다”며 “AI 기술을 통해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초개인화 솔루션을 누구든 받아볼 수 있게 한다면 전국 모든 학생들에 평등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새로운 솔루션을 시작한 계기는.

“기술이 이 정도로 발전했음에도 여전히 매스에듀케이션(Mass Education)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교육을 초개인화 교육(Bespoke Education)으로 완전히 전환하고 싶다. 학생들은 ‘만인만색(萬人萬色)’으로 저마다의 성장과 목표가 다르다. 하지만 지금의 교육 서비스는 초개인화된 커리큘럼을 제공하지 못한다. 특히 학교나 학부모의 세심한 서포트를 받기 어려운 지역의 학생들은 맞춤형 진학·진로 관리를 받지 못해 입시 구조상 훨씬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 전문 입시 컨설팅은 왜 필요한가.

“대입 전황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 컨설턴트가 데이터를 분석해 학생 중심의 전략을 짜주는 컨설팅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고비용 구조 탓에 실제로 전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은 전체의 10% 안팎에 불과하다. 나머지 90% 이상의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셈이다. 자신의 성적과 역량, 목표에 맞춰 어떤 선택과목을 들어야 하는지, 어느 대학과 학과에 합격 가능성이 높은지 알려주는 전문 가이드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 데이터에 집중한 이유는.

“1시간에 3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에 호가하는 컨설팅도 결국은 데이터가 전부다. 이 데이터를 컨설팅



이병희 윈드폴리 대표가 메트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교육·입시, 정보 불균형 편차 커져
AI 기반 진로·진학 설계 플랫폼 선택

복잡한 대입전형에 전문 가이드 필요
AI 데이터로 정확도 높이고, 비용 낮춰
성적 분석해 대학 합격 가능성 예측

네이버 에듀에 대학 공식 데이터 제공
논술시험 예측 서비스 ‘논술 캐스트’
약술형·제시문 대학별 논술 맞춤분석

향후 취업 매칭까지 솔루션 영역 확대
인재 바르게 키우는 가치있는 기술로



트가 어떻게 풀어내는지 역량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다시 말하면, 같은 데이터여도 컨설턴트 개인의 역량에 따라 ‘복불복’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객관적인 계산식과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가 오히려 더 정확하고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 캐스트에 대해 설명해달라.

“월 2만5000원 수준의 구독료로 이용할 수 있는 상시적인 입시·진로 컨설팅 플랫폼이다. 학생이 내신, 모의고사, 수능 성적과 본인의 상황을 입력하면, 수많은 대학과 전형, 장학제도 데이터 중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대학과 불리한 대학, 합격 가능성을 정밀하게 분석해 준다. 대학별, 학과별로 데이터를 넣으면 합격 가능성을 0~100%까지 정확한 수치로 보여준다. 기상에보 UI와 결합해 구름에 비, 구름 조금, 맑음 등으로 보여주어 직관적이다. 쉽고 명확한 예측이 가능하다.”

윈드폴리는 최근 네이버와 교육 데이터 관련 협업 계약을 맺었다. 네이버는 10월 교육 포털 ‘네이버 에듀(NAVER EDU)’를 새롭게 론칭하고, 기존 교육 검색 서비스 범위를 대학 학과와 수시·정시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네이버 에듀에서 검색되는 대학 데이터는 윈드폴리에서 제공한다.

윈드폴리의 입시·진로 컨설팅 서비스도 지속 확장될 예정이다. 윈드폴리는 대입 과정에서 점차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논술 시험 합격 예측 서비스인 ‘논술 캐스트’도 새롭게 시작한다.

- 네이버와의 협업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네이버도 수도권과 지역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교육 포털을 론칭하고 그 안에 우리 데이터를 공식 제공한다. 교육 정보는 과목 선택과 진학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데이터 신뢰도가 특히 중요한 분야다. 네이버 에듀를 통해 보여지는 주요 진학과 진로 데이터에 전부 윈드폴리 제공 표시가 붙게 된다.”

- 논술 캐스트에 대한 관심도 높다.

“최근 수시 입시에서 약술형 논술과 제시문 논술의 비중이 커지고 있지만, 서울 및 수도권 이외 지역 학생들은 이를 준비하기가 매우 까다롭다. 윈

드폴리의 논술 캐스트는 대학별 출제 유형과 평가 기준을 정밀 분석해 맞춤형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한다. 가령 한양대학교 유형의 논술 문제를 구매해 답안을 작성하고 제출(Submit)을 누르면, AI가 한양대의 배점 기준에 맞춰 항목별 피드백과 점수, 그리고 최종 합격 확률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막연했던 논술 준비 과정에서 본인에게 진짜 유리한 전형인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이후 해당 대학에 실제 합격한 대학생 멘토의 1:1 멘토링까지 연계하면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 교육 시장에 많은 변화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

“고가의 컨설팅 비용도 그렇지만, 무작정 학원 수업을 더 듣고 인강을 추가하는 방식의 사교육비 지출도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명확한 계획이나 진단 없이 불안감에서 비롯된 지출이 많기 때문이다. AI의 정확한 성적 분석과 멘토의 체계적인 설계가 더해지면, EBS 무료 인강이나 기존 콘텐츠만 활용해도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다. 월 2만 5000원의 구독료와 멘토 비용을 더해 한 달 15만 원 안팎의 비용만으로도 학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획기적인 교육 모델이 완성된다.”

윈드폴리는 향후 합격 예측과 데이터 솔루션 영역을 교육 뿐 아니라 ‘취업’까지 확대한다. 취업 시장은 각종 자격증과 언어능력, 면접 등 준비 과정이 더욱 길고 복잡해지는 또 다른 영역이다. 이병희 대표는 교육 시장보다 취업 시장이 훨씬 크다고 판단해 같은 솔루션을 취업 영역까지 확장하기로 했다. 사람의 재능과 경험을 기술로 연결해 ‘Human Potential Maximizer(개인 잠재력 극대화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것이 목표다.

- ‘취업’ 영역까지 AI 솔루션을 확대하는 건가.

“과거와 달리 이제는 명문대 합격이 취업과 미래를 보장하기 어렵다. 대학 합격 이후에도 면접, 자격증, 과외 등 취업 준비에 들어가는 비용과 수험 기간이 두 배 이상 늘어났다고 한다. 이 문제 역시 대입과 동일한 공식을 적용해 개인별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 취업 준비생을 중심으로 두고, 대학에서의 학점과 활동 내역 등의 데이터를 입력하면 개인별로 가장 적합한 직무를 찾아주고, 합격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추천할 수 있다. 연동된 채용 공고를 AI가 찾아주고 직접 연결할 수도 있다. 또 기존 오디바이스를 통해 활동했던 대학생 멘토들이 사회에 진출한 이후, 이들을 후진생과 다시 연결해 주는, 현직자 멘토링 생태계로 확장도 가능하다.”

- 앞으로 윈드폴리가 나아갈 방향은.

“해외 아이비리그 대학들도 이제는 시험 답안지나 완성된 포트폴리오만으로 학생을 평가하지 않는다. 학생이 그 내용을 완전히 이해했는지, 그리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다시 설명할 수 있는지를 글과 말로 표현하는 역량을 더 높이 평가하는 시대다. AI가 누구에게나 그럴듯한 답을 만들어주는 시대일수록 오히려 ‘진짜’가 더 중요해진다. 윈드폴리는 학생들이 바로 그 ‘진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회사가 되고자 한다.

AI 기술은 결국 사람을 향해야 한다. 우리의 역할은 AI를 통해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개인의 선택지를 넓혀줌으로써, 불필요한 줄세우기 경쟁에서 벗어나 각자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한 명의 학생, 한 명의 인재를 바르게 키워내는 데 기술이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KT, 2027 신인 선수 11명 계약 완료…1R 이승원과 2억5000만원에 사인
▲김재열 ISU 회장, 동계올림픽연맹 회장 선출…7개 종목 연맹 이끈다

/사진 뉴스스

▲대한체육회 선수위, 유도 정수진 ‘AG 체계 탈락’ 관련 진상 규명 촉구
▲‘한국 최초 유럽 데뷔’ 메조소프라노 김청자 별세

▲“6개 점이 세상 바뀌어”…한글 점자 ‘훈맹정음’ 100주년 특별전
▲조선왕실로 시간여행…가을 궁중문화축전 D-DAY